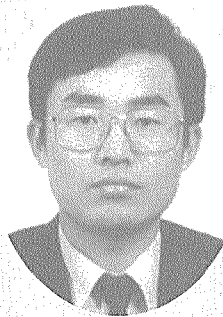


# '95년도 정유사 경영실적 및 향후 국내 유가관리방식 개선 필요성



박 영 덕  
〈유공 업무부장〉

## 1. '95년도 정유사 경영실적

○ 정유5사의 정유부문 매출액은 15조 7,211억 원으로 '94년대비 21.2% 증가하였으나, 정유부문 당기 순이익(세전기준)은 △845억 원으로 '94년보다 오히려 △608억 원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 한편, '95년도에 정유5사는 '94년 대비 평균 +21.2%의 높은 매출액 신장율을 기록하였다.

〈표-1〉 정유사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1994	1995	증감율(%)
○ 매출액	143,721	175,814	22.3
- 정유부문	129,747	157,211	21.2
- 기타부문	23,524	29,968	27.4
○ 순이익 (세전)	2,656	4,719	77.7
- 정유부문	△237	△845	적자확대
- 기타부문	2,893	5,564	92.3

○ 이러한 높은 매출신장에도 불구하고 정유5사의 세전순이익은 정부가 유가관리상 인정해주고 있는 허용이익 수준 (2,199억 원) 에 크게 못미치는 △84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게 되었다.

〈표-2〉 유가관리상 허용이익대비 세전순이익

(단위 : 억원)

1995 허용이익	1995 세전순이익(잠정)	차이
2,199	△845	△3,044

○ 그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유 FOB, 운임, 유전스 이자 등 원유도입 관련

〈표-3〉 95년 유가반영 비용 대비 실적비용 비교

(단위 : \$/B)

	원유 FOB	운임	유전스이자율
유가반영 (A)	16.39	0.74	3.82%
실적 (B)	16.50	0.79	6.36%
차이 (A·B)	△ 0.11	△ 0.05	△ 2.54%
손익영향 (억 원)	△ 499	△ 226	△ 439

비용의 저가 반영

■ '95 적용 표준정제비의 지체반영

- '93년 실적기준으로 '94.11 산정한 '94 적용 정제비가 '95년 1~11월 유가에 적용되고 '95 적용 표준정제비는 12월 한달만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른 '95년 중 정유사 부담은 △ 1,081 억원 이었음.

〈표-4〉 유가반영 정제비 추이

	1994적용	1994실적	1995적용
원/배럴	3,045	3,324	3,240
적용기간	94.11 ~ 95.11	-	95.12 ~

■ 시장경쟁 심화 및 정부의 유통마진 저가 책정에 따른 정유사의 유통비용 부담 증대

〈표-5〉 사별 주유소 현황

(단위 : 개소)

	유공	호유	한화	쌍용	현대	합계
1993말	2,404	1,767	844	754	435	6,204
1994말	2,748	2,110	962	865	610	7,295
1995말	3,070	2,395	1,019	1,061	825	8,370
1996말(추정)	3,598	2,660	1,170	1,209	1,034	9,671

\* 영업중 기준

〈표-6〉 적정 유통마진 대비 유가반영 유통마진

(원/ℓ)

	대리점	주유소	계
1994 실적(A)	14.71	23.27	37.98
적정수준(B)*	21.77	35.51	57.28
인상요인(C=B-A)	7.06	12.24	19.30
12. 1일 반영(D)	1.75	2.27	4.02
(반영비율:D/C)	(24.8%)	(18.5%)	(20.8%)
추가인상소요(C-D)	5.31	9.97	15.28

\* '94년 영업실적 기준, 자기자본의 세후이익률 10%기준

■ 고도화 부문 투자 확대에 의한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증가

〈표-7〉 95년중 고도화설비 투자내역

	설비능력(천B/D)	가동일	투자액(억원)
유공			
- 중질유 분해	50	1996. 12	4,790
- 중질유 탈황	60	1996. 12	
호유			
- 중질유 분해	70	1995. 12	4,579
한화			
- 중질유 분해	40	1999. 12	17
- 중질유 탈황	70	1999. 12	
쌍용			
- 중질유 분해	30	1995. 12	7,015
	33	1996. 10	
- 중질유 탈황	50	1995. 12	
합계			
- 중질유 분해	223		16,401
- 중질유 탈황	180		

2. 현행 정부의 국내 석유가격 관리방식

○ '97. 1. 1일 예정된 유가 자유화에 대비하여, 정부는 '94년 이후 국내 석유제품의 최고판매가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가연동제를 실시하여 왔다.

[원유가 연동제 ('94. 2. 15~10. 31)]

■ 국내 석유류 고시가격을 전월의 원유도입 실적 FOB 및 환율에 연동시켜, 매월 가격을 변동(전유종 동일 조정을 적용)시키는 원유가 연동제 시행

■ 주요내용

- 국내 가격구조를 싱가포르 Spot 가격구조에 30% 접근
- 정유사 적정원가의 유가 반영(원가=수익 대응)
- 국내 환경규제 강화 및 수요구조 변화에 대응기 위한 중질유 분해·탈황 시설의 투자 촉진 차원

에서 Sulfur Premium 확대

**[국제 제품가격 연동제('94. 11. 1~)]**

- 유가 자유화에 더욱 접근하기 위해 국내 석유제품가격을 유종별로 국제 제품가격에 연동시키고, 당월 도입원가가 당월 국내유가에 즉시 반영되도록 기존의 원유가 연동제를 개선
  - 주요내용
    - 국내 가격 기본구조의 국제가격 구조로의 추가 접근(50%)
    - 기본구조를 기준으로 매월 국제 제품가격 등락이 국내 제품가격 구조에 즉시 반영
    - 원가 산정기준 원유비 산정방식 변경(국제 원유 Basket 제도 도입)
      - 정유사 실도입 FOB → 국제원유 Basket 기준에 의한 추정 FOB
    - 적정 제품 도입원가의 인식을 위한 유종별 국내 공급비용 반영
- \* 국내 공급비용 : 시설투자 고정비(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수송·저유비, 판관비, 비축비용, 마진 등

〈표-8〉 국제제품가격연동제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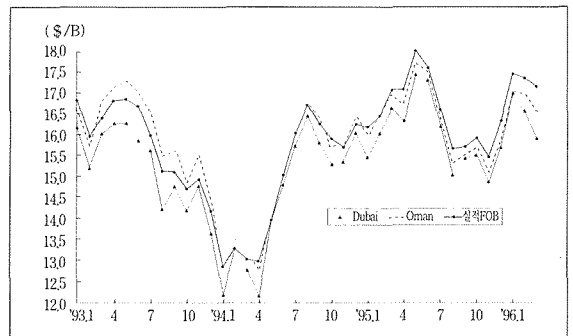
비용	수익
국내도입 추정 FOB, 환율, 전년도 비용에 의한 복합원가	유종별 국내가격    MOPJ(전월 국제제품 시장의 유종별 평균가격) + 도입비용(보험료, 부대비, 기금, 관세, 유전스 금융비 등) + 국내공급비용(시설투자 고정비, 수송저유비, 판관비, 비축비용 등)

- 국제제품가격 연동제 시행에 따라 국내유가의 적정성은 유가 반영 원유 FOB(추정값)와 운임·유전스이자율 등 비용계수 등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었다.

**3. 현행 유가관리방식에 의한 정유사 손익악화 심화**

- '96년도에 들어 유가반영의 기준이 되는 비용과 정유사 실적 비용간의 괴리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정유사의 손익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내유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유가반영 FOB의 경우 '91. 10 ~ '94. 9기간을 대상으로 한 단순회귀분석에 의한 추정값(상대적으로 중질·고유황 유종인 Dubai 와 Oman 의 평균값에 연동)으로서, 최근 들어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중·경질유 및 고·저유황간 상대가격 변화, 사우디 원유 생산정책 변화 등 구조적 변동요인과 국내 석유수요의 경질화, 저유황화에 따른 국내 원유도입 구성비의 변화로 인한 원유도입 FOB 상승분을 국내 유가에 적절히 반영치 못하여 정유사의 손실요인이 누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국내 석유수요의 경질화 진전 및 환경규제 강화와 더불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국제유가 및 국내도입 원유FOB 비교



\* 국내도입원유 실적FOB는 '93년중에는 Dubai, Oman의 평균수준이었으나, '94년중에는 Oman에 근접하고, '95년 이후 Oman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9〉 국내도입원유 품질 추이

	API(度)	Sulfur(%)	ASL 도입비율
1994	33.7	1.38	-
1995	34.8	1.29	7.1%
1996. 1~3월	34.8	1.29	7.6%

\* ASL : Arabian Super Light

〈표-10〉 유가반영 FOB대비 실적 FOB비교

(단위 : \$/B)

	유가반영	실적	차이	손실액(억원)
1995	16.39	16.50	△ 0.11	△ 499
1996. 1월	17.06	17.47	△ 0.41	△ 201
2월	17.32	17.37	△ 0.05	△ 25
3월	16.36	17.27	△ 0.91	△ 276
1996. 1~3월	16.90	17.37	△ 0.47	△ 502
1996. 4~5월*	17.73	18.29	△ 0.56	△ 509
1996. 1~5월	17.23	17.23	△ 0.50	△ 1,011
96년간 추정손실 (1~5월 손실액 x 12/5)				△ 2,426

\* 정부제출 도입계획 기준

- 또한 정부는 해양유류오염사고 방지 목적으로 정유사 노후유조선 운항으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예방차원에서 선령 15년 미만의 선박을 사용토록 권장함에 따라, 정유사는 정부의 이러한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왔다.
- 이에 따라, 정유사들이 작년 한해동안 용선한 유조선중 선령 20년 이상된 선박은 전체의 35.0%에 달했으나 올들어 1-4월 동안은 17.7%로 절반으로 줄어 들었으며, 20년 이상된 유조선의 월별 용선비율도 1월 27.3%에서 2월 22.6%, 3월 17.4%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4월에는 그 비율이 5.4%로 격감했다.
- 반면 선령이 15년 미만인 유조선은 작년 한해동안 평균 41.5%에 불과했으나 올해 1-4월 동안은 71.8%로 크게 증가, 정유사들이 신형 선박의 용선비율을 크게 늘리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 그러나 이로 인한 운임 증가분이 유가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정유사의 손익 악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11〉 선령별 용선비용 추이

	15년미만	15~20년	20년이상
1995	41.5%	23.5%	35.0%
1996. 1~4월	71.8%	10.5%	17.7%
증감	+30.3%P	△ 13.0%P	△ 17.3%P

\* 해운항만청 자료

〈표-12〉 유가반영 운임대비 실적운임 비교

(단위 : \$/B)

	유가반영	실적	차이	손실액(억원)
1995	0.74	0.79	△ 0.05	△ 226
1996. 1월	0.72	0.94	△ 0.22	△ 110
2월	0.72	0.93	△ 0.21	△ 121
3월	0.72	0.97	△ 0.25	△ 77
1996. 1-3월	0.72	0.95	△ 0.23	△ 308
'96년간 추정손실 (1~3월 손실액 x 12/3)				△ 1,232

#### 4. 현행 국내 유가관리방식 개선 필요성

- 현재 국내 석유산업은 '97. 1. 1일 유가자유화, 석유수출입업 참여 자유화, 유통업 참여 자유화, '99. 1. 1일 정제업 참여 자유화, 대외개방 등 석유산업 자유화와 더불어, 환경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관련 비용의 급증 등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적정가격기준이 부재한 상태로 유가 전면 자유화를 시행할 경우 국내 정유사는 현행 유가제도하에서의 구조적 손실 발생요인을 계속 부담하게 되어 손익 악화가 가중될 뿐 아니라 소비자와 정부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합리적인 적정 가격기준 부재시 문제점

- 가격관리 주체가 다원화되는 상황에서 가격수준에 대한 정유사의 대소비자 설득이 어렵고
- 공급자간 출혈경쟁에 의한 덤핑 판매 또는 공급자간 가격담합 발생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 비상시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준거를 확보키 어려움.
  - \* 일본정부는 지난 '90. 8월 Gulf전이 발발하자 국제 원유 및 제철가격의 변동에 따른 국내 석유판매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90. 9~'91. 4월까지 매월 전월 선적기준 원유 및 수입 석유제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일본 정유사들의 원가 변동을 국내 유가 산정시 반영하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하였으며, '91. 5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일본 석유업계는 자국 소비자에 대한 유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 방식을 준거로 매월 기준유가를 산정· 발표하

고 있음.

- 이에 따라, 「유가 전면 자유화에 대비한 무리없는 실시여건 조성」이라는 유가연동제 추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 첫째, 유가 자유화 이후 국내 유가 운영의 합리적인 준거들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가 수준의 예측가능성 (투명성/객관성)을 확대하고,
  - 둘째, 국내외 가격구조의 차이 해소를 통한 자유화 이후 국내유가 및 석유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 셋째, 정유사 비용 발생분이 국내유가에 적기/적정 반영되지 않음에 따른 정유사 손익 악화 지속 및 유가 자유화시 급격한 국내유가 상승을 방지하고,
  - 넷째, 기업 및 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적응력 함양 및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유화 이전 단계에서 현행 유가운영제도의 제반 문제점이 조속히 검토/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 학 제

### 페플라스틱 넣고 기름 나와라 「뚝뚝」

#### 유화환원장치로 석유 추출한다. 일본 구라타박사 발명

환경을 오염시키는 페플라스틱에서 귀중한 석유를 짜내는 기술이 개발돼 화제이다.

더욱이 페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유출하는 기계가 동양상상 및 철학의 기본개념인 기(氣)이론의 하나인 파동에너지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장치를 발명한 사람은 일본 이화학연구소 구라타 다이시 박사이다. 이 기계 장치는 플라스틱류를 비롯 자동차의 타이어, 범퍼, 건설폐자재 등 석유화학제품들을 불과 몇초만에 나프타를 비롯하여 등유, 경유, 휘발유 등 원자재 물질로 환원시킨다.

마치 귀소본능처럼 석유에서 탄생돼 사람에게 의해 실용화되다 쓸모없이 버려질때 다시 석유로 태어나는 페플라스틱 환원장치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재활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기계장치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정신과학연구원과 프

리임 산업(주)이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정신과학연구원은 이 기계장치를 보급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충남 대덕 연구단지 인근에 전시장을 겸한 소형 플랜트를 설치하고 지방자치체등과 판매상담을 하고 있어 석유업계에 미칠영향도 궁금해지고 있다.

이 기계장치는 각종 플라스틱 종류를 섞서 2백50도 대기압에서 순식간에 완전자동으로 처리해 원유와 가스등으로 재생하며 장치에 쓰이는 에너지자원이 자체 생성된 연료이기 때문에 유지비용도 적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쓸모없는 플라스틱, 종류를 집어 넣고 「석유 나와라 뚝뚝」 하면 몇초만에 석유가 나오는 요술같은 「유화환원장치」가 실용화 될날도 멀지 않은것 같다. 국내의 페플라스틱 발생량은 94년 기준 연간 2백40만톤으로 이중 10%에 해당하는 25만톤만이 실용화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유화환원장치의 실용화가 절실해지고 있다.